



66년 LPGA 역사 김세영 이름 새겼다

72
홀

27
언더
파

소
렌
스
탐
과
타
이
기
록

20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막을 내린 미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TBC 파운더스컵 우승자 김세영이 두 손을 치켜 들고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다. /연합뉴스

JTBC 파운더스컵서 시즌 첫 승... '섬의 여왕'서 애리조나 '사막의 여왕'으로

2016년 LPGA 투어 우승자

김세영 (한국)
JTBC 파운더스컵 (2016.3.21)
통산 4승
* 우승할 때 한국시간 기준

노무라 하루 (일본)
호주여자오픈 (2.21)

장하나 (한국)
* 코초 챔피언십 (2.9)
* HSBC 위민스 챔피언스 (3.6)

김효주 (한국)
퓨어실크 버하마 클래식 (2.1)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김세영(23·미래에셋)이 폭풍타를 앞세워 2016 시즌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영양출신의 김세영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파이어 골프클럽(파72·6538야드)에서 열린 JTBC 파운더스컵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8개를 쏟아내 10언더파 62타를 찍어냈다. 합계 27언더파 261타를 친 김세영은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19·합계 22언더파 266타)를 무려 5타차로 따돌리고 여유있게 정상에 올랐다.

김세영의 우승 스코어는 타수 기준 최소타인 258타에는 못미치지만 2001년 스탠더드 레지스터 핑 대회에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세웠던 72홀 최다 언더파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소렌스탐은 2001년 대회 2라운드에서 '꿈의 타수'인 59타를 치기도 했다. LPGA 파 71 코스에서 최소타 기록은 258타로 박희영(27), 앤절라 스탠퍼드(미국) 등이 갖고 있다. 박희영은 2013년 매뉴리야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26언더파 258타(파71)를 쳐 스탠퍼드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우승했다.

지난해 3승을 거둔 김세영은 시즌 첫 승이자 LPGA 투어 4승을 올려 우승상금 22만5000달러(약 2억6000만원)를 받았다. 김세영은 새로 발표되

는 세계랭킹에서 두 계단 오른 5위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김세영의 우승으로 한국선수들은 올 시즌 열린 6개 대회에서 4승을 휩쓸었다.

3라운드 선두 지은희(29·한화)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서 4라운드를 시작한 김세영은 전반에만 버디 5개를 낚아 5타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 11번홀(파5)에서 이글까지 잡은 김세영은 2위 그룹과 6타로 격차를 벌리며 우승을 향해 질주했다. 김세영은 13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보며 추격하는 선수들의 기세를 꺾어 놓았다.

15번홀에서는 벙커에서 친 두 번째 샷을 1.2m에 붙여 또 한 타를 줄인 김세영은 16번홀에서도 탭인 버디를 성공했다. 18번홀(파4)에서 파를 잡은 김세영은 마지막 조 선수들이 경기를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우승에 필요한 스코어를 먼저 작성했다. 김세영은 18번홀에서 4m 거리에서 버디 기회를 잡았지만 이를 놓치는 바람에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우지 못했다.

김세영의 4라운드 10언더파 62타는 1라운드 때 이미향(23·KB금융그룹)이 세운 코스 레코더 타이 기록이기도 하다.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지은희는 1타를 줄이는데 그쳐 19언더파 260타로 메건 강, 폴라 크리머, 스테이시 루이스(이상 미국) 등과 공동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내가 10언더를 쳤다고요? 맏소사”

김세영 우승 소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TBC 파운더스컵에서 최다 언더파 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김세영(23·미래에셋)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세영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끝난 대회에 27언더파 261타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LPGA 투어 통산 네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2001년 여자골프의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스탠더드 레지스터 핑 대회에서 세운 최다 언더파와 타이 기록이다.

김세영은 우승 뒤 LPGA 투어 공식 인터뷰에서 “오늘 마지막 퍼트를 하고 나서도 내 스코어를 몰랐다”며 스코어카드를 체크하고서 캐디(폴 푸스쿠)에게 물어봤다.

“내가 10언더파를 쳤다고요? 맏소사, 꿈만 같네요.”

김세영의 LPGA 투어 이전 18홀 최소타는 65타로 여섯 차례 기록한 적이 있다. 1타 뒤진 공동 2위에서 4라운드를 시작한 김세영은 이미

전반에 5타를 줄이며 우승을 예감했다. 11번홀(파5)에서 나온 이글은 김세영의 우승에 재기를 박았다.

김세영은 “11번홀에서 245야드를 남기고 5번 우드로 두 번째 샷을 쳤는데 홀 2피트(약 70cm)에 붙었다”며 “완벽한 타이밍이었고 (추격하는 선수들과) 티수 차를 더 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완벽한 우승을 거뒀음에도 김세영은 지난 대회 때는 성적이 좋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김세영은 “지난 대회 때는 자신감을 잃었는데 우승을 하고 나니 가족 등 많은 사람이 떠올라 울 뻔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소렌스탐은 자신의 최다 언더파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한 김세영에게 축하 이메일을 보냈다.

소렌스탐은 21일(한국시간) LPGA 투어로 보낸 이메일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우승을 차지한 김세영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LPGA 투어 2년 차에 이같은 성적을 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

손연재 불·곤봉서 메달 땀지 말입니다 리스본 월드컵 개인 최고점 경신



손연재 인스타그램 캡처.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가 리스본 월드컵 대회 불과 곤봉 결선에서 개인 최고점수인 18.550점을 받았다.

손연재는 20일(이하 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마지막 날 종목별 결선 불과 곤봉에서 각각 18.550점을 받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후프 종목에서 자신의 최고 점수인 18.500점을 기록했던 손연재는 불과 곤봉에서 최고점수를 또 다시 0.050점 올렸다. 불 결선에서 네 번째 연가자로 나선 손연재는 영화 ‘대부’ 삽입곡인 ‘팔라 피우 피아노(Parla Piu Piano)’에 맞춰 연가해 예선(18.350점·3위) 때보다도 0.200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손연재는 지난달 핀란드 에스포 월드컵 불에서

2014년 4월 이후 첫 월드컵 금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이날 자신의 최고점까지 경신하며 리우 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높였다. 손연재는 또 곤봉 결선에서 여덟 번째 연가자로 나서 경쾌한 테리 스나이더의 ‘오예 네그라(Oye Negra)’에 맞춰 감적인 연가를 펼쳤고 예선(18.000점·4위)보다 0.550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손연재는 후프 결선에서는 동메달(18.500점)을 추가했다. 리본 종목에서는 예선에서 실수를 범하며 17.450점을 획득, 다른 3명의 선수와 공동 7위에 올랐던 손연재는 8명이 출전하는 결선 예비출전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개인종합 4위(72,300점)에 그쳤던 손연재는 마지막 날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연합뉴스

슈틸리케호, 7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 도전

24일 러 월드컵 2차 예선 레바논전·27일 태국 평가전

슈틸리케호가 한국 축구사의 또 다른 이정표를 도전한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이 24일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레바논전과 27일 태국과의 평가전에서 무실점으로 승리하면 역대 최다 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 기록을 경신한다.

21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역대 최다 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 기록은 7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다. 1978년 함흥철 감독과 1989년 이회택 감독 시절 국가대표팀이 각각 세운 기록이다.

슈틸리케호는 지난해 9월 3일 라오스전부터 11월 17일 라오스전까지 6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승리했다. 24일 레바논과의 경기에서도 무실점으로

이거면 역대 최다 기록과 동률을 이루고 27일 태국전까지 승리하면 8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또한 슈틸리케호는 최다 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에도 도전한다.

슈틸리케호는 지난해 8월 동아시아컵 북한전에서 0-0으로 비긴 이후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 중이다. 레바논전과 태국전을 무실점으로 막으면 1970년 한홍기 감독 시절 작성된 8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을 깨뜨릴 수 있다.

앞서 슈틸리케호는 지난해 경기당 0.2골 실점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가맹 209개국 중 최소 실점률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